

단국대학교 2015학년도전형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2015. 3

단국대학교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단국대학교 2015학년도전형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2015. 3

단국대학교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목 차

I .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목적 및 방향	1
II .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과정	2
III .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영역	5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5
2.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	9
3.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12
4.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8
IV . 결론	23

<별첨 자료>

- 별첨1. (공문) 학칙개정 안내
- 별첨1-1. (공문 별첨) 학칙개정 내용
- 별첨2. (공문) 규정개정 안내
- 별첨2-1. (공문 별첨) 규정개정 내용
- 별첨3. (공문)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장 발급 의뢰
- 별첨3-1. (공문)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장 추가 발급 의뢰
- 별첨3-2. (공문)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위촉장 발급 의뢰
- 별첨4. (공문) 2015학년도 전반기 논술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
- 별첨4-1. (공문) 2015학년도 후반기 논술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
- 별첨5. (공문) 2015학년도전형 논술고교교사자문단 위촉(안)
- 별첨5-1. (공문 별첨) 2015학년도전형 논술고교교사자문단 명단
- 별첨6. (공문) 2015학년도 모의논술고사 평가 의견 보고
- 별첨6-1. (공문 별첨) 2015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영역별 교사자문단 의견
- 별첨7. (공문) 2015학년도 논술고사 평가 의견 보고
- 별첨7-1. (공문 별첨) 2015학년도 논술고사 영역별 교사자문단 의견
- 별첨8. (공문) 대학별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보고
- 별첨8-1. (공문 별첨) 1차 회의 참석명부
- 별첨8-2. (공문 별첨) 1차 회의록
- 별첨9. (공문) 대학별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보고
- 별첨9-1. (공문 별첨) 2차 회의 참석명부
- 별첨9-2. (공문 별첨) 2차 회의록 서명
- 별첨9-3. (공문 별첨) 2차 회의록
- 별첨9-4. (공문 별첨) 선행학습영향평가 종합의견서
- 별첨10. 2015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문제(인문계열)
- 별첨11. 2015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문제(자연계열)
- 별첨12. (공문) 201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실사 결과보고
- 별첨13. 201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실사 질의내용 예시
- 별첨14. 2015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문제 및 가이드답안(인문계열-오전)
- 별첨15. 2015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문제 및 가이드답안(인문계열-오후)
- 별첨16. 2015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문제 및 가이드답안(자연계열-오전)

- 별첨17. 2015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문제 및 가이드답안(자연계열-오후)
- 별첨18. 2015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 및 가이드답안(인문계열)
- 별첨19. 2015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 및 가이드답안(자연계열)
- 별첨20. 2014학년도 외국인전형 후기 1차 한국어능력평가문제(국내용)
- 별첨21. 2014학년도 외국인전형 후기 1차 한국어능력평가문제(해외용)
- 별첨22. 2014학년도 외국인전형 후기 2차 한국어능력평가문제(국내용)
- 별첨23. 2015학년도 외국인전형 전기 1차 한국어능력평가문제(국내용)
- 별첨24. 2015학년도 외국인전형 전기 2차 한국어능력평가문제(해외용)
- 별첨25. 2014~15학년도 외국인전형 면접고사 평가가이드
- 별첨26. 외국인전형 한국어능력 평가조건표
- 별첨27. 2015학년도 해병대군사학과 인성검사문제
- 별첨28. 2015학년도 해병대군사학과 면접문제 예시
- 별첨2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별첨3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첨3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 별첨자료는 별도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목적 및 방향

1. 목적

단국대학교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의 유발을 방지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국대학교의 각종 대학별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된 대학별고사를 대상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시행한다. 단국대학교는 선행학습 예방 및 감독을 통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사교육비 절감과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교육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고 대학 본연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

2. 방향

단국대학교는 각종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위하여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단국대학교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각 전형별로 출제 문제와 출제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도록 한 후, 위원들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입학 전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단국대학교의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Ⅱ.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과정

단국대학교의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선행학습 영향 평가는 논술 등 필답고사, 구술·면접 등 단국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대학별고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법령의 시행 개념 및 선행학습 영향 평가의 세부 진행 과정은 아래 그림 <Ⅱ-1>, <Ⅱ-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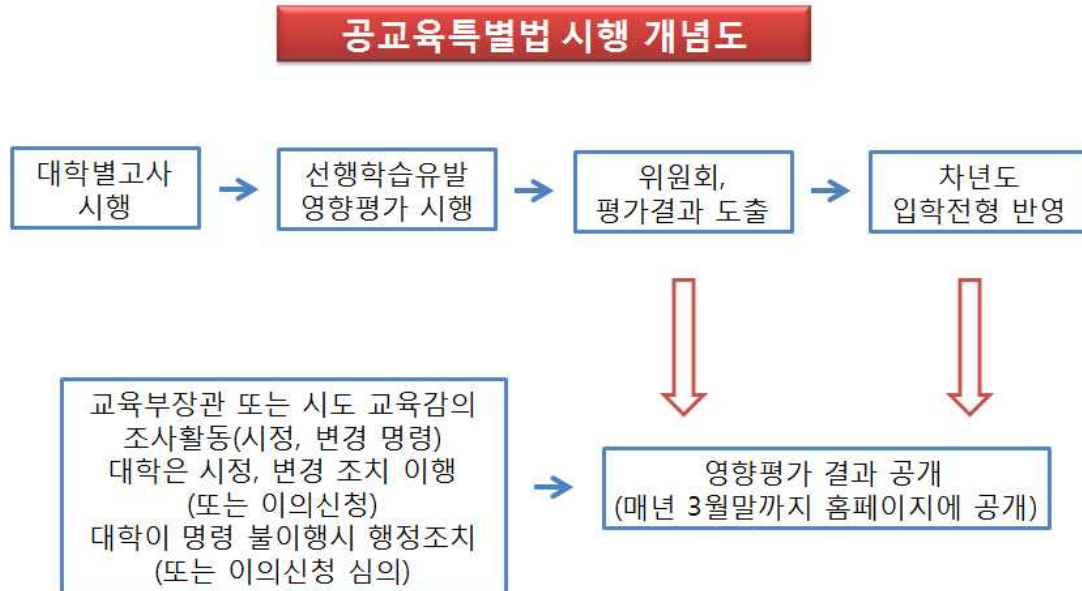
○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395호)
(신규제정 2014.3.11, 시행 2014.9.12)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25591호)
(신규제정 2014.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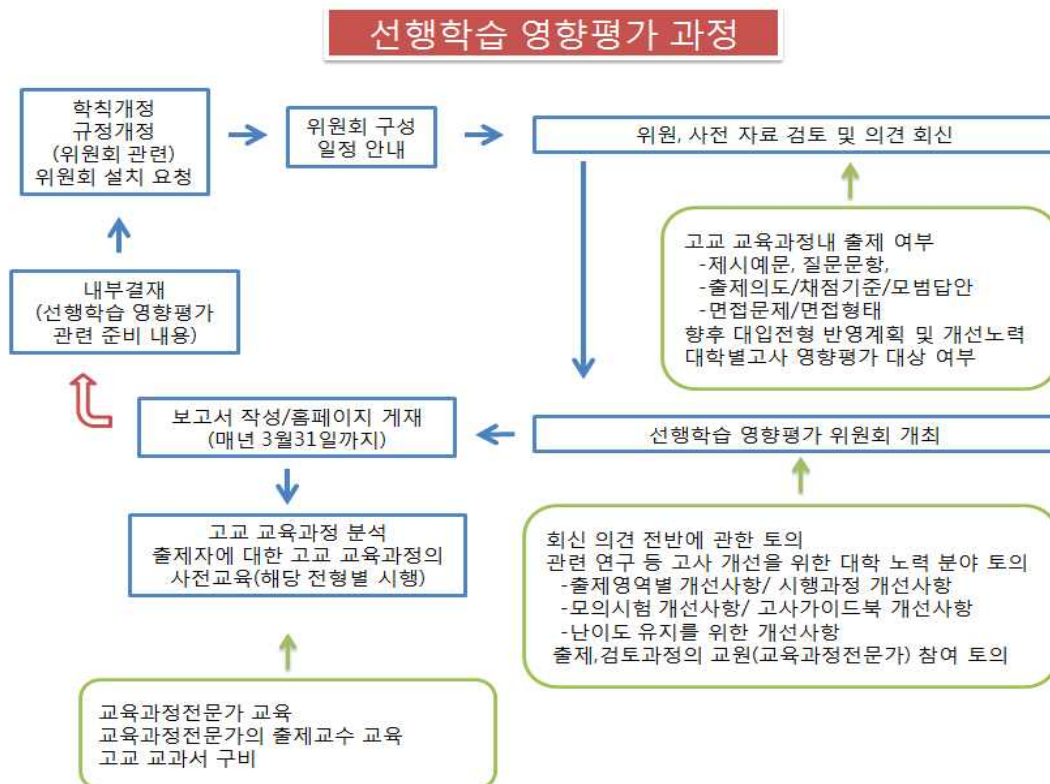
○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 전형

- 논술 등 필답고사
- 구술 및 면접고사
- 신체검사
- 실기 및 실험고사 (* 단, 체육·예술교과의 실기고사는 제외)
- 교직적성·인성검사
- * 해당 고사 종료 시 신속히 영향 평가 시행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개념도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과정의 흐름도



<그림 II-1> 공교육특별법 시행 개념도



<그림 II-2> 선행학습 영향평가 과정의 흐름도

○ 선행학습 영향평가 과정의 개요

단국대학교는 대학별고사 출제 문제 및 관련 시스템을 포함한 관련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의 유효성을 위하여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위원별 평가 분야를 지정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2015학년도 전형의 경우, 공교육특별법 제정일을 고려하여 1회 평가로 국한하였지만, 2016학년도 전형부터는 연중 2~3 차례에 걸쳐 각각의 대학별고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해당 회계연도 말에 종합 평가를 시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는 교내 교원과 외부 교사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들은 대학별고사 출제 문제에 대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제시문, 질문문항,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면접문제, 면접형태 등)를 평가하고, 향후 대입 전형에 대한 반영 계획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대학은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합·정리하고,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출제 영역별 개선사항은 물론 시행과정 상의 개선사항까지도 포괄적으로 함께 다룬다.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의 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제자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문제 출제 시 고등학교 교사의 검토 등 출제 업무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대학별고사를 운영한다.

보고서는 각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과 개별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초안은 각 위원들의 동의를 확인한 후 최종 보고서로 완성하여 입학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Ⅲ.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영역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단국대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③항(“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시행 2014.9.12.)에 근거하여 단국대학교의 학칙과 관련 규정(직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일체를 개정·제정하고,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간사 포함 14인)를 구성하여 2015학년도 전형 대학별고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시행하였다.

○ 관련 학교규칙 개(제)정 사항

- 학칙 개정(2014.12.29)
- 직무분장규정 개정(2015.1.13)
- 위임전결규정 개정(2015.1.13)
-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제정(2015.1.13)
-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위촉(2015.1.20)

※ 2015.3.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 ‘직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규정’은 현재 개정 과정임.

[별첨 1, 1-1, 2, 2-1, 3, 3-1, 3-2 참조]

단국대학교는 상기와 같이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칙, 직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학교 규칙을 마련하였다.

○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표 III-1>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구분		성명	평가분야
내부위원	대학 교원(7인)	교학부총장	위원장
		입학처장	당연직
		입학부처장	
		윤승준 교수	인문(국어)분야
		한길준 교수	수학분야
		박희철 교수	수학분야
		조영상 교수	영어분야
외부위원	고교 교사(4인)	김세계 교사	국어분야
		김하정 교사	수학분야
		곽현정 교사	사회분야
		위미선 교사	영어분야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2인)	김덕년 장학사	국어분야
		박향숙 장학사	수학분야

간사 : 입학팀장

(총 14인 : 내부 8인, 외부 6인)

단국대학교는 대학별고사의 효율적인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위하여 대학 교원 8인(간사 포함), 고교 교사 및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6인, 총 14인으로 구성된 대학별고사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각 위원들은 상기 <표 III-1>에 명기한 ‘평가분야’를 담당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원들은 해당 평가분야 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외국인전형 등 단국대학교의 입학 전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 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차년도, 혹은 차차년도 입학 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5학년도 대입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 연간 일정

공교육특별법 제정일을 고려하여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는 아래 <표 Ⅲ-2>와 같이 2015년 2월에 1회 진행하되, 2016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는 <표 Ⅲ-3>과 같이 대학별고사의 일정에 따라 2~3차례에 걸쳐 평가한다.

<표 Ⅲ-2> 2015학년도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 평가 연간 일정

구분	2014년										2015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대학별고사 (8개 전형)			외국인전형 (전기1차) 필기/면접	모의논술	재외국민 전형 외국인전형 (전기2차) 필기/면접				논술고사 외국인전형 (전기1차) 필기/면접		해병대 군사학과 (인성/면접) 외국인전형 (전기2차) 필기/면접	
고교교육과정교육				모의논술 출제위원					논술 출제위원			
교사논술자문단		교사자문단 위촉 (2014.4~ 2015.3)		논술워크숍 (전반기) 모의문제 검토					논술워크숍 (후반기) 논술문제 검토			
출제문제공개 논술자료집제작		논술출제 평가지침서 논술결과 보고서 논술고사 자료집		모의논술 문제/답안 공개					논술고사 문제공개	논술고사 답안공개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학칙개정	규정개정 위원위촉 1차회의	2차회의

○ 2016학년도 대입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 연간 일정

<표 Ⅲ-3> 2016학년도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 평가 연간 일정

구분	2015년										2016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대학별고사 (8개전형)			외국인전형 (전기1차) 필기/면접	모의논술	재외국민 전형				논술고사		해병대 군사학과 (인성/면접)	
					외국인전형 (전기2차) 필기/면접				외국인전형 (전기1차) 필기/면접		외국인전형 (전기2차) 필기/면접	
고교교육과정 및 출제관련 워크샵				논술지도교수	재외국민전형 출제위원				논술출제위원			
교사논술자문단		위촉 (2015.4~ 2016.3)		논술워크샵 (전반기)					논술워크샵 (후반기)			
				모의문제 검토					논술문제 검토			
출제문제공개 논술자료집제작	논술자료집	논술출제 평가지침서		모의논술 문제/답안 공개		재외국민 전형 결과보고서			논술고사 문제공개	논술고사 답안공개		
논술지도교수		위촉 (2015.4~ 2017.3)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정비	연간일정 안내			<문제분석> 모의논술 재외국민전형 외국인(전기)	1차회의				<문제분석> 논술고사	<문제분석> 해병대군사 학과/외국인 (후기)	2차회의
	2015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공개										위촉 (2016.1.20.~ 2017.1.19)	2016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제작

2.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

○ 논술고사 고교교사자문단 운영

단국대학교는 ‘공교육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논술고사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하고자 고등학교 현장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특히 사교육 유발 요소가 가장 크다고 지적받는 논술전형의 공교육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지난 2012년 ‘논술고사 고교교사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모의논술고사와 논술고사 출제 문제 전반에 관하여 고교 교육과정 연계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왔다.

‘2015학년도 논술고사 고교교사자문단’은 인문계열 5명(국어 및 사회교과), 자연계열 8명(수학교과 3명, 과학교과 5명) 등 모두 13명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논술고사 고교교사자문단’은 경기도교육청 추천 고교 교사, 대학 소재지 인근 지역의 고교 교사, 단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사, 동문 고교 교사 등으로 구성하며, 2년 단위로 위촉하고 있다.

‘논술고사 고교교사자문단’은 정례 워크숍 개최(연 2회)와 출제 문제 평가보고서 제출(연 2회)을 통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 문제 출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여 왔다. 단국대학교 입학처는 고교교사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2015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부터 현직 교사가 출제 문제 검토 작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2015학년도 전형에서는 시범적으로 현직 교사(1인)를 자연계열 출제 문제 검토위원으로 위촉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2016학년도 전형부터는 계열별로 2인씩 총 4명의 교사를 검토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확정하는 등 공교육 연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고교교사자문단은 모의논술고사 및 논술고사 출제 문제와 관련하여 “난이도, 교육과정 연계성, 선행학습 연계성, 종합서술”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 의견을 대학에 제출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고교교사자문단은 출제 문제에 대한 검토 외에도 출제위원이 직접 작성하여 공개하는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에 대한 상세한 점검을 통하여 출제 문제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별첨 4, 4-1, 5, 5-1, 6, 6-1 7, 7-1 참조]

○ 출제위원 대상, 고교 교육과정 및 출제 관련 워크숍

2016학년도 전형부터는 아래 <표 Ⅲ-4>와 같이 논술전형과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출제위원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워크숍을 3차례 시행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워크숍을 담당할 강사는 「단국대학교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교과별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인 장학사로 구성)이며,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의 제고 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출제 방향을 건의하는 등 교육내용의 범위에 국한을 두지 않고 출제 관련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표 Ⅲ-4> 출제위원 워크숍 일정

시기	강사	대상	교육내용
2015.06	김덕년 장학사(국어) 박향숙 장학사(수학) 김하정 교사(수학) 곽현정 교사(사회교과)	논술지도교수(3인)	고교 교육과정 및 출제 관련
2015.07	김덕년 장학사(국어) 위미선 교사(영어) 김하정 교사(수학)	재외국민전형 출제위원 (6~7인 내외)	
2015.11	김덕년 장학사(국어) 박향숙 장학사(수학) 곽현정 교사(사회교과)	논술고사 출제위원 (13인 내외)	

※ 워크숍 내용의 범위

- 해당 분야의 고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나 교육방향
-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한 대학별고사의 출제 방향 건의
- 대학별고사 출제자가 해당 교육을 통하여 고교 교육과정을 인지하고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의 다양한 교육
(범위에 국한을 두지 않음)
- 강의는 강사별 20분 이내로 진행

○ 교과중심 구술면접 및 적성고사 폐지

단국대학교는 이와 별개로 아래 <표 III-5>에서 보듯, 교과지식을 확인하는 구술면접(일반전형, 어학특기자전형)과 적성고사(일반전형)를 폐지하는 대신 학생부 위주의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을 도입하는 등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왔으며, 학교생활에 충실한 수험생이 본인의 적성과 잠재 능력을 대학 입학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전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왔다.

죽전캠퍼스는 국·영·수 교과목의 지식을 확인하는 구술면접을 2014학년도 전형부터 폐지하고 학생부교과우수자를 선발하기 시작하였고, 이 전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에서 출제되었던 어학특기자의 면접고사 역시 공교육 정상화에 위배된다는 취지를 수용, 2015학년도 전형부터는 폐지하였다.

천안캠퍼스 역시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인 적성고사를 2014학년도까지 시행한 후 해당 전형을 폐지하고, 2015학년도부터는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을 도입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단국대학교는 향후에도 대학별고사의 면접고사 형식을 대교협 권고 사항에 따라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 식 구술형 면접은 가급적 지양할 것이며,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표 III-5> 연차별 교과지식 확인을 위한 전형의 축소 현황

구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죽전 캠퍼스	면접고사 형태 선발	면접고사 폐지 → 학생부우수자전형 신설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 유지
	어학특기자 선발		어학특기자 폐지
천안 캠퍼스	적성고사 형태 선발		적성고사 폐지 →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 신설

3.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단국대학교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는 선행학습 영향 평가와 관련한 2차 회의 (일시 : 2015.2.24.(화) / 장소 : 단국대 범정관 505호)를 통하여 2015학년도 전형에서 시행된 대학별고사 전체의 출제 문제를 분석·평가하고, 아래 <표 III-6>과 같이 선행학습 영향 평가가 필요한 대상을 규정하였다.

[별첨 8, 8-1, 8-2, 9, 9-1, 9-2, 9-3, 9-4 참조]

<표 III-6> 전형별 선행학습 영향 평가 대상 여부

대학별고사유형		운영 여부	모집 인원	선발 인원	출제문제 분석대상	영향평가대상여부
수시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	96	60	○	○
	학생부종합전형(실사)	○	1,175	873	○	○
	논술우수자전형	○	400	400	○	○
	외국인전형 (순수외국인)	필답고사	비 제 한	40	○	○
		면접			○	○
정시	해병대군사학과 (인성검사·면접)	○	30	30	○	×

- ※ 학생부종합전형 중 정원의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265명 모집에 28명이 등록했음.
- ※ 학생부종합전형(실사), 외국인전형(면접) 질문은 교과 지식과 무관한 인성, 진로계획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나, 일부 질문은 상황에 따라 교과지식과 연관될 수 있음을 지적. 해병대군사학과(인성검사·면접)는 공교육특별법과는 무관한 인성검사지를 활용하며, 국가관 등을 묻는 면접으로 진행됨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는 대학별고사 출제 문제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교과서 밖 자료에서 출제하였을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여부, 질문 문항 분석을 통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개념을 묻고 있는지 여부, 출제의도·채점기준·모범답안 등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하고 해당 전형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대학별고사(전형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내용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참조사항]

※ 출제 문제는 별첨 10, 11 참조

해당 전형은 공교육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4년 7월에 시행되었음. 따라서 영어분야 출제는 고교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수험생이 재외국민임을 고려할 때, 모든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난이도와 고교생이 알아야 할 내용과 개념을 다루고 있다고 총평함. 다만 일부 위원이 영어문제가 교과서 밖에서 출제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문제의 난이도가 고교생이 학습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어 전반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다고 총괄 평가됨. 의견으로는 전문어, 상위어, 저빈도어의 사용이 제시문의 성격상 불가피할 경우 어휘의 ‘뜻풀이’ 제공이 제안됨.

학생부종합전형(실사)

※ 질문 예시는 별첨 12, 13 참조

대다수 위원은 학생부종합전型的 실사가 전통적인 면접고사 방식이 아닌 특정 수험생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인성 및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자기소개서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면접이었다고 총평하였으나 특정 질문(미분과 적분의 정의/인공위성에 필요한 전자회로의 구성 등)은 상황에 따라서 교과 지식과 충분히 연계될 수 있음을 지적, 향후 교과 지식과 연계될 수 있는 질문을 지양하고, 잠재능력과 꿈, 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면접방식으로서의 전환을 요구. 또한 대학 측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평가(실사) 시 고교별 기재 상황의 다양성은 인정하나, 국가 수준에서 허용하는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을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기록하였다 해서 질의를 하거나 혹시 평가에도 반영이 되었다면 이는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함.

[실사 현황]

- 일정 : 2014.10.27.~11.18.
- 대상 : 62명(고교 방문 24명, 전화 통화 38명)

[실사 질문 예시]

- 자유탐구반(SOW)에서 다양한 과학실험을 했다고 하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은?
- 질문노트를 작성했다고 하였는데, 질문노트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였나?
- 드림플래너라는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어떻게 작성하였나?
- 2학년 문예부 활동으로 다문화지역탐방자료집을 제작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떤 내용인가?
- ‘중구청소년기자단’의 선발과정과 활동내용은?
- 1학년 때 교내 영문저널에 특집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였는데, 학교 내에서 영문저널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지, 특집기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논술우수자전형

[참조사항]

※ 출제 문제는 별첨 14~19 참조(모의논술고사 포함)

1. 자연계열 출제 영역이 ‘수학+과학’(2015학년도) → ‘수학’(2016학년도)으로 조정되어 본 평가에서는 기 출제된 ‘과학’ 출제 문제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였음
2. 모의논술고사 출제 문제는 본 평가와는 무관하게 대학 측이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를 의뢰 하였으며 본 양식에는 평가결과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별첨 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함.

[인문계열]

일부 문제가 교과서 밖 자료에서 출제되었으나(오전고사 3번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모두 고교 교과서 내에서 출제되었음. 교과서 밖에서 출제된 ‘3번 문제’ 역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음. 일부 문제는 제시문 간의 구조적 연관성이 취약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소수의 수험생이 선택하는 교과서보다는 다수의 수험생이 선택하는 교과서에서 제

시문을 발췌할 것을 권장함. 또한 수년에 걸친 논술자문단 운영을 통한 노하우 축적과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문제 구성이 돋보인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어휘의 난이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뜻풀이’를 제공하는 것을 추후 검토할 것을 논의. EBS 논술특강과의 유사성이 많고, 학생부 3등급 수준의 학생이 접근 가능한 평이한 수준이며 제재도 다양하고 문항 유형이 수능 국어영역과도 유사한 점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함.

[자연계열]

출제 문제 전체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고 수학 교과와 전체 영역을 활용하여 풀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한 함수 등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 다만 문제 출제 시 형식적 측면의 통일성을 보완하여 수험생이 질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제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

외국인전형(순수외국인)

※ 출제 문제는 별첨 20~26 참조

[필답고사(한국어시험)]

출제 문제는 TOPIK 3급 수준의 난이도이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지 않았고, 교과서 밖 자료에서의 출제는 없는 것으로 총평.

[면접]

해당 면접은 기본한국어 구사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함. 질문은 교과 지식이나 선행학습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와는 무관하나 일부는 상황에 따라서 교과 관련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개선이 필요. 수험생이 외국인이므로 향후 학업계획이나 전공과 관련한 진로 계획을 묻는 면접으로 변경 요망

[면접질문 예시]

- 자신의 성격 중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특성은 무엇인가요?
- 한국(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교우관계는 어떠했나요?
- 학교에서 남을 위해 봉사한 경험을 말해보세요?
-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와 의논하세요?
- (지원 모집단위에 따라) 면접위원의 판단에 근거하여 공부하는데 기본이 되는 용어를 질문.

해병대군사학과(인성검사 · 면접)

[참조사항]

※ 인성검사지 및 면접 질문은 별첨 27, 28 참조

단국대와 해병대 측의 계약으로 2013학년도에 설치된 해병대군사학과(모집정원 30명)는 ‘입학 생 전원 국가장학금 수령 및 졸업 이후 해병대 장교 임관’이라는 조건이 있으며, 수험생들은 해병대 측이 제작한 인성검사지에 필히 답변하여야 함.

질문은 전체적으로 예비 장교가 갖추어야 할 국가관, 충성심, 리더십을 확인하는 문제였다고 총평하였지만 ‘성(性), 부부생활’ 등 수험생의 연령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일부 질문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또한 면접문제 역시 교과지식과의 연계성은 없지만 일부 질문은 수험생의 정치적 성향을 강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인성검사지는 해병대 측이 제공하는만큼 해병대 측과 협조하여 인성검사지의 일부 문항을 변경할 것을 주문. 면접 질문 역시 수험생에게 적절하지 않은 일부 문항(정치적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

[인성검사질문 예시]

총 567문항 (답안형식 : ‘그렇다/아니다’로 표시)

- (문제 1번) 기계에 관한 잡지를 좋아한다.
- (문제 50번) 나만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할 때가 종종 있다.
- (문제 100번) 스릴을 맛보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 (문제 150번) 가끔 나 자신이나 남을 꼭 해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문제 200번) 비록 보답할 수 없더라도 친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 (문제 250번) 때때로 범인의 영리한 행동을 보고 흥이 나서 그가 잡히지 않고 잘 빠져나가기를 바란 적이 있다.

[면접질문 예시]

- 해병대 및 해병대군사학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간단히 말해보십시오.
- 군인이 명예로운 직업인가에 대하여 간단히 말해보십시오.
-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히 말해보십시오.
- 군 입대를 기피하는 학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간단히 말해보십시오.
- 애국심을 가장 많이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간단히 말해보십시오.

4.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단국대학교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는 대학별고사의 평가 외에도 각 전형이 갖고 있는 특징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입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전형에 따른 선발인원 조정 여부, 논술고사 출제 시 검토교사 참여 확대 여부, 논술고사의 제시문 활용 범위 확대 여부, 논술고사 제시문 출처 공개 시 유의사항,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원자격 확대 및 사범대학 신입생 선발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아래는 해당 전형별 논의사항에 따른 확정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제안] 자연계열 응시과목 확대안

전공별 수업 청취에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므로 자연계열 전형방법을 기존 ‘수학+영어’에서 ‘국어+수학+영어’로 변경하여 신입생의 국어 학습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 표명

[협의사항] 현 수준 유지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전형방법(2과목 시행이 추세)과 수험생이 대학을 선택하여 사전에 학습하는 준비상황을 고려, 응시과목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고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함. 또한 재외국민은 외국인과 달리 해외에 단기 체류하는 학생이 대다수이므로 이들의 한국어능력을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은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평가

[제안] 문항개발안

단순 어휘 및 계산 중심의 문제를 탈피하여 수험생의 지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문항 개발을 제안

[협의사항] 2016학년도 전형 시범운영

수험생의 학습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수립을 위하여 입학처 및 관련 교원이 협의를 진행하고, 2016학년도 전형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학생부종합전형(실사)

[제안] 선발인원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

[협의사항]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은 2015~2017학년도 전형까지 매년 아래와 같이 확대되고 있고 선발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7학년도 전형 수준의 선발인원을 향후 유지하되 대학 입학정책 및 전략 변화에 맞춰 신중히 접근하기로 함

- 2015학년도(650명, 정원대비 13.47% 선발)
 - 2016학년도(738명, 정원대비 15.66% 선발)
 - 2017학년도(781명, 정원대비 16.58% 선발) (예정)
- (정원 내 기준 3년간 131명 확대, 선발비율 3.11% 상향)

[제안] 지원자격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의 대다수 전형이 졸업예정자에게만 지원자격을 주고 있음. 수험생의 폭넓은 대학 선택을 위해 졸업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확대할 것을 제안

[협의사항]

2015~2016학년도 전형까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대다수 전형이 졸업예정자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2017학년도 전형부터는 대다수의 전형이 졸업예정자뿐 아니라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확대하기로 확정. 다만 졸업자는 삼수생까지(2015.2월 졸업자까지) 허용하기로 확정함

[제안] 학과 내 전형별 인원 조정

국제학부, 사범대학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

[협의사항]

국제학부는 국제경영학전공(20명), 모바일시스템전공(3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두 전공의 입학정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렵고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별도의 특별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다만 사범대학(체육교육과 제외)은 2016학년도 전형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을 신설해 신입생을 선발하며, 2017학년도 전형에서도 이를 유지하기로 확정함. (2017학년도 전형의 경우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사범대학 입학정원의 17%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임)

[제안] 실사는 ‘인성,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협의사항]

실사 질의사항에 대한 일부 문항을 개선하여 ‘인성, 학생부, 자기소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실사를 활성화하도록 함. 2016학년도 전형부터는 실사 방문 전 학생이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였다면 답변 가능한 질문인지 질의 사항을 점검하고, 교과관련 지식이나 선행학습과 연계된 질문은 철저히 제외하기로 함.

논술우수자전형

[제안] 선발인원 확대(100명) / 수능최저학력기준 부활

[협의사항]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고려, 선발인원 확대와 수능최저학력기준 부활은 검토하지 않음.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과 대학의 전형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기 발표된 2016학년도 선발인원 수준 유지

<연도별 논술전형 선발인원>

- 2014학년도(600명, 정원대비 12.09% 선발)
- 2015학년도(400명, 정원대비 8.29% 선발)
- 2016학년도(356명, 정원대비 7.55% 선발)
- 2017학년도(360명, 정원대비 7.64% 선발) (예정)

[제안] 문제 출제 시 검토 교사 참여

[협의사항]

2015학년도 전형 출제에서는 자연계열(수학) 교사 1인이 출제 작업에 참여하여 출제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였다. 출제 문제의 안정성과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반응이 있어 2016학년도 전형에서는 인문, 자연계열별로 2인씩 총 4인의 교사를 출제에 참여시켜 출제 문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기로 확정

[제안] 제시문 활용 범위 확대

인문논술은 출제 문제의 정형화가 고착되어 이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 바, 제시문의 범위를 교과서 밖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

[협의사항]

인문논술은 2016학년도 전형부터 교과서와 더불어 교과서 밖 자료의 활용을 통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고교 교육과정 수준의 텍스트 활용을 권장. 다만 모의논술고사 시행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예고할 것을 협의

[제안] 자연계열 출제 문제의 개념문제 도입

[협의사항]

기존 계산 중심의 문제풀이 식 논술을 일부 지양하되, 수학적 원리와 기본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개념 확인형 문제를 도입하는 데 동의. 다만 모의논술고사 시행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예고할 것을 협의

[제안] 제시문의 출처 공개

출판사 명까지 공개하는 기존의 제시문 출처 제시 방식이 교육시장에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제기하며 출처 공개의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안

[협의사항]

논술문제의 제시문 출처 공개는 타 대학도 시행 중임. 다만 위 제안처럼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수험생이 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 교과서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2016학년도 전형 출제문제부터는 ‘예) 고교 국어교과서’ 식의 표기로 출처 안내를 대체하기로 확정

[제안] 논술고사 폐지

인문논술은 시험 양태가 수능 국어영역과 비교해 난이도나 제시문의 수준이 비슷한 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협의사항]

단국대학교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정시전형과는 별개로 수시전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형을 유지하기로 함

외국인전형(순수외국인)

해당 내용 없음

해병대군사학과(인성검사 · 면접)

[제안] 인성검사 및 면접문제 개선

[협의사항]

인성검사는 대한민국의 장교(육해공군) 임용 시 공통 적용되는 평가지임. 검사지를 제공하는 해병대 측과 일부 질문의 변경이 가능한지 협의(수험생의 연령층을 고려하여 청소년 대상 질문으로 변경). 또한 면접문항 역시 일부는 개선이 필요한 바, 수험생에게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기로 확정

IV. 결론

단국대학교는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수험생의 학습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심신 발달 도모에 기여함과 아울러 교육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고 대학 본연의 공익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단국대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395호)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91호)에 따라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우수자전형, 외국인전형, 해병대군사학과 인성검사·면접 등 단국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대학별고사 전체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향후 전형에 반영한다.

단국대학교는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위하여 학칙과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제정하였고, 교내외 전문가 14인으로 이루어진 ‘단국대학교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전형별 출제 문제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공교육 특별법 제정일을 고려하여 2015학년도 전형에 대해서는 1회 평가에 그쳤으나, 2016학년도 전형부터는 연중 2~3 차례에 걸쳐 각각의 대학별고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종합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단국대학교는 ‘논술고사 고교교사자문단’을 구성하여 모의논술고사와 논술고사 출제 문제 전반에 관하여 고교 교육과정 연계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여 왔다. 또한 2016학년도 전형부터는 논술전형과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출제위원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2015학년도 전형부터 도입된 논술고사 출제 문제에 대한 고교 교사의 검토 작업은 2016학년도 전형에서도 지속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과지식을 확인하는 구술면접과 적성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학생부 위주의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을 도입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단국대학교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는 대학별고사 출제 문제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교과서 밖 자료에서 출제하였을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여부, 질문 문항 분석을 통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개념을 묻고 있는

지 여부, 출제의도·채점기준·모범답안 등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형	선행학습 영향 평가 주요 내용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필요시 어휘의 뜻풀이 제공 필요
학생부종합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방문/전화통화를 통한 인성 및 학교생활기록부·기재 사항 확인 교과지식 연계 질문 및 교외활동에 대한 질의와 평가 지양
논술우수자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 [인문계열] 제시문간의 구조적 연관성 제고 필요 [자연계열] 질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필요
외국인전형 (순수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지 않음 일부 교과 관련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면접 문항은 개선 필요
해병대군사 학과(인성검 사·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 장교가 갖추어야 할 국가관, 충성심, 리더십을 확인하는 문제 수험생의 연령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정치적 성향을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지양함이 바람직

‘단국대학교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는 대학별고사에 대한 평가 외에도 각 전형이 갖고 있는 특징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입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전형에 따른 선발인원 조정 여부, 논술고사 출제 시 검토교사 참여 확대, 논술고사의 제시문 활용 범위 확대, 논술고사 제시문 출처 공개 시 유의사항,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원자격 확대 및 사범대학 신입생 선발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향후 대입전형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전형	대입 전형 방법 개선 관련 제안의 주요 내용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어휘 및 계산 중심의 문제에서 탈피하여 지원자의 학습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출제
학생부종합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의 확대 필요 인성,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방향의 실사 활성화
논술우수자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 출제 시 검토 교사 참여 제시문 활용 범위 확대 및 제시문 공개 방식 검토 계산 중심의 문제 풀이 식 출제를 지양하고 개념 문제 도입 필요
외국인전형 (순수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지 않음 일부 교과 관련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면접 문항은 개선 필요
해병대군사 학과(인성검 사·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부적절한 문제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문제로 변경 필요

2015학년도 단국대학교의 각종 대학별고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상과 같은 선행학습 영향 평가 결과는 단국대학교의 2016학년도 대학별고사 출제 및 향후 입학전형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단국대학교의 대학별고사 출제 유형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재 선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 단국대학교는 앞으로도 끊임 없는 노력을 통하여 선행학습 유발을 방지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선도 대학이 되고자 한다.